

등록금 협상

재단참석여부 쟁점화

전설가계정·'고향장학' 논의 위해 참여 요구

'92학년도 등록금협상이 재단의 협상참석여부를 놓고 학교측과 학생측의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11시30분 본관 부총장실에서 열린 2차 등록금협상에서 학생대표들은 91년 등록금 협상당시 전설가계정은 재단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등록금 재원에서 지

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제시한 92년 가예산에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제시된 반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재단의 참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안승진(한 의분·2) 위원장은 "전설가계정, 건물유지비 등은 재단의 유형고정자산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분야의 협상은 학교가 아닌 재단과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본교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 '고향장학'이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생의 등록금이 아닌 재단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재단과의 협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라며 등록금협상에 재단참석의 당위성을 밝혔다.

또한 학교측은 재단의 참석여부

부에 대해 "재단이 자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좋겠지만 재단측의 강제로 참석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 지금의 상황에서 재단이 참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2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휴게실에서 "노동권 교육정책실행 방안 및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15개 학교 등록금결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학사일정

교무과는 92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발표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18일:개교기념일(43주년)
▲5월27일~5월30일:2학기 수강신청기간
▲6월10일~6월20일:1학기 기말시험
▲6월22일~8월22일:하계방학
▲6월29일~7월25일:계절학교 개설

신임교원 임용 확정 발표 서울8명·수원22명·대학원1명 채용

새로 임용된 교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문리과대학
△김수중(철학과) 교수 △노시학(지리학과) △최상진(국문과) 교수 △박규환(물리학과) 교수 △남순건(물리학과) 교수 △이기태(생물학과) 교수
◆법과대학
△강희원(법학과) 교수
◆정경대학
△정현주(무역학과) 교수
◆평화복지대학원
△Pedro B. Bernales 교수
◆외국어대학
△이건수(영문학과) 교수 △표상용(러시아어) 교수
◆사회과학대학
△황승연(사회학과) 교수

◆공과대학
△박영태(전자공학과) 교수 △예윤해(전자공학과) 교수 △서덕영(전자공학과) 교수 △정연모(전자공학과) 교수 △한치근(전자공학과) 교수 △김인석(전자공학과) 교수 △유승민(기계공학과) 교수 △김창녕(기계공학과) 교수 △이우택(화학공학과) 교수 △조재영(화학공학과) 교수 △변승남(산업공학과) 교수 △문재승(유전공학과) 교수 △권영하(섬유공학과) 교수 △한충희(건축공학과) 교수
◆자연과학대학
△이동훈(우주과학과) 교수 △이석준(물리학과) 교수 △최정우(물리학과) 교수 △정해양(물리학과) 교수

신입생 환영주간 선포

대동놀이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늘 오후1시부터 체과대앞 광장에서 신입생환영주간 선포식 및 전체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전체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먼저 식전행사로 경희운동단의 시범공연과 신입생들의 율동 배우는 시간이 준비된다.

1부순서는 신입생환영주간의 선포를 알리는 이성일(원자공·4) 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각 단대 중앙운영위원의 소개와 최만식(경영·4) 총학생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또한 외대 문화부장 주재진(중문·3) 군과 신입생인 신

해원(농학·1) 양의 공동사회로 진행되는 2부순서는 단대별로 실시된 M.T와 O.T를 축하하는 자리로서 단대별로 1팀씩 나와 장기 자랑을 겨루게 된다. 이어 3부는 백두울림과 비나리등이 공연을 벌이고 노래배우는 자리가 준비되며 대동놀이를 끝으로 식은 막을 내린다.

고고미술사연구소 유물 발굴 파주 일대서 출자형 금관 출토

본교 고고미술사 연구소(이하 고미연)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파주군 성동리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발굴 작업에서 신라시대 출자형 금관을 출토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관련기사 8면〉
이번 발굴에서는 금관 이외에도 60경 신라유물들을 비롯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중 60경 신라의 유물들은 한강이북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것이어서 고고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 고

대학주보 41기 수습기자 모집

17일 오후6시 원서마감

대학의 민주화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해 건전한 학풍과 대외문화향상을 건설하고 있는 대학주보가 92학년도를 이끌어갈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 양캠퍼스 신입생
- ▲모집부서 : 일반(취재, 학술, 특집, 문화) 기자, 킷(문화) 기자, 광고(기획, 카피, 도안) 기자, 사진기자
- ▲선발방법 및 일정
 - 1) 시험전형 : 주제토론, 인성조사, 작문 및 면접
 - 2) 시험일시
 - △서울캠퍼스 : 1992. 3. 17(화) 오후6시
 - △수원캠퍼스 : 1992. 3. 18(수) 오후6시
 - 3) 시험장소 : 양캠퍼스 편집실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편집실 본관좌측 신문방송국내 (구내전화 0095), 수원편집실 학생회관좌측 신문방송국내 (구내전화 2056)
- ▲원서접수 마감 : 3월17일 오후6시까지

대학주보사

인복위 복지장학생 선발 서울 1백명, 수원 50명 수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92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생을 선발한다.

모두 1백명에게 2천5백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이번 선발에서 장학생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인복위 교무 신청서 1부, 학부모과세증명서(지방세, 국제 각1통씩), 주민등록증본, 전학기 성적증명서 각 1통을 인복위에 제출하면 선발기준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선발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21일 오후5시까지이며 복지장학금 수혜자 공고는 추후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수원캠퍼스 인복위는 총 50명의 학생에게 1천만원의 복지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18일부터 3일간 접수를 받으며 23일

신갈행 버스 학내 운행 오후 6시까지, 요금 1백원

수원캠퍼스 총무과는 지난 2월 24일부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내 셔틀버스와 신갈버스의 운행을 병행한다.

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갈에서 자연과학대학사이를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되며 요금은 1백원으로 예년과 동일하다.

이 요금은 대학발전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한편 매표소에서 매입한 신갈행 표는 일반 버스와 직행버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며 나머지 금액은 학교에서 보조하게 된다.

신입생 피해 최소화할 해결 절실

▼우리가 흔히 쓰는 고사성어중에 '명약관화'라는 말이 있다. 이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뜻으로 어떠한 일을 끝까지 보지않아도 그 결과를 능히 알 수 있을때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말은 사전준비가 충분해야 결과도 좋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번해 수원캠퍼스는 러시아어학과와 국제관계학과 두개의 야간학과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야간학과는 그 모집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다. 그러한 잡음은 비단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야간학과 신설을 발표한 모든학교에서 생겨났으며 일부학교에서는 이문제가 학내분규

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측은 구체적인 학과발전계획과 강의실확보 교수문제등을 들어 학생들의 이해제기는 있었으나 학교측에서는 신입생 입학전까지 모든 제반계획을 세워놓는다면 학생들을 설득했다. 그러던중 신입생은 입학하였고 입학한 신입생들은 현재 강의실과 교양 과목 수업등의 문제를 들어 현재 수강 신청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은 공대에서 실시되고 있어있는 수업을 단대편제의소속감 결여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도서관 이용 등 학내복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 강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은 대책위를 꾸

수습기자 모집 광고 ①

“도깍이 소굴”

◀ 서울캠퍼스
(본관서 우측 4·19기념탑옆)



(학생회관 1층 좌측공간)

어느때부터인가
대학주보사 기자들
'도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있는곳,
그곳이
도깍이 소굴입니다

대학주보사

수습기자모집

대학주보사는 1955년 5월12일 '신홍대학보'로 창간. 1960년 3월25일 지령100호를 발간하면서 '경희대학주보'로 제호 변경을 한후 다시 동년 6월30일 106호부터 '대학주보'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5월11일에는 지령1,000호를 맞게 됩니다.

모 집

- 원서접수기간: 1992. 3. 2(월) ~ 3. 17(화)
- 원서접수마감: 1992. 3. 17(화) 오후6시
- 원서접수처: 서울캠퍼스 신문방송국내 대학주보편집실(연락처: 교내전화0095), 수원캠퍼스: 학생회관내 대학주보편집실(연락처: 교내전화2056)
- 모집부서:
 - 원서접수: 서울캠퍼스 신문방송국내 대학주보편집실(연락처: 교내전화0095)
 - 수원캠퍼스: 학생회관내 대학주보편집실(연락처: 교내전화2056)
- 모집대상: 1992학년도 신입생
- 시험일시:
 - 서울캠퍼스: 1992. 3. 17(화) 오후6시
 - 수원캠퍼스: 1992. 3. 18(수) 오후6시
- 시험장소: 양 캠퍼스 편집실
- 시험전형: 주제토론, 인성조사, 작문 및 면접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편집실로 연락 바랍니다.